

TV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00 그때 그사람(재)	00 KBS 뉴스광장	00 Kut오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10 부부극장 공작지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08 15 Kut오닝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나만의 당신)
09 00 신문이야기 들쭉구소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10 팩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존고 55 튜튼생활채널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20 정치이야기 是非非非	00 KBS 네트워킹특선 아름다운 총보 아름다운 사람들 55 바른말 고운말	15 사랑의 가족 45 수목 드라마 (골든크로스)(재)	00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20 갈데까지 가보자(재)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개과천선)(재)	00 SBS12뉴스 30 건강클리닉 30 영상기획 한국의 명소(재)
1 40 뉴스 특급	00 스카우트(재) 50 생로병사의 비밀 500회 특집 코리아닥터스(재)			
2 40 직인직실	40 강연 100℃ 특선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0 MBC 월드컵포토(재)	00 SBS 뉴스 10 세상발견 유레카(재)
3 50 정오판의 시사방법	00 뉴스 토크	00 후드스 잃어버린 숲(재) 25 뼈아픈 놀이(재) 55 TV 유지원 풍다공	00 MBC 경제 뉴스 10 응개 쇼나타 40 헬로킴지 아하! 과학탐험대 2	10 SBS 이슈인 사이드
4 50 박종진의 레드난마	00 시사진단 55 튜튼 생활채널(재)	25 코파 반장의 동화 수사대 55 파일럿 두근두근 로맨스 30월 2부(재)	30 똑?똑! 키즈클럽	00 품의 보석 프리즘스톤 30 쿠리가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20 2014 지방선거 정당정책연설 새정치민주연합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플러스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내 마음의 크레파스
6 00 김승연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 정보통	20 5·18 특별기획 (인연) 1부 스페셜	05 날씨와 생활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7 30 필름	50 일일드라마 (천상 여자)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칼기운 말 하나)
8 30 관찰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한밤의 TV 연예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브라질월드컵 D-30 대한민국 월드컵대표 23인 50 리얼체력 세상을 뚫다	00 수목드라마 (골든 크로스)	00 수목미니시리즈 (개과천선)	00 드라마 스페셜 (너희들은 포위됐다)
11 00 먹방소맛의 전설	30 KBS 뉴스라인	10 파일럿 두근두근 로맨스 30월 3부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오 마이 베이비
12 20 모큐드라마 (싸인)(재)	30 네트워킹기획 문화산책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세상의 모든 다크 ①:35 다크멘터리 3일	35 MBC 뉴스 24 55 스포츠 다이아리 ①:10 나누면 행복	35 나이트 라인 ①:05 SBS 컬처클럽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육아를 부탁해!>	14:45 곤	19:30 EBS 뉴스
05:40 엄마없이 살아보기(재)	10:10 하이힐-하루 이 시간 힐링	15:00 지구를 지켜라	19:50 다문화 고부열전(재)
06:10 세계의 눈 (자연)(재)	10:50 최고의 요리 비결	15:15 마사와 곰	20:40 다크 오늘
07:00 곤(재)	11:20 세계테마기행 (발간반도)(재)	15:30 모어라 덩동당 스페셜	20:50 세계테마기행 (순다열도)
07:15 우당탕탕 아이쿠(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덩동당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익세비전길)
07:30 꼬마버스 타요(재)	12:10 EBS 초대석	16:20 우당탕탕 아이쿠	21:50 EBS 24프라임 (아버지의 성)
07:45 로보카 폴리(재)	13:05 지식채널e	16:30 책갈피 오정 모보	22:45 극한직업 (유해동물 포획단)
08:00 덩동당 유치원	13:10 사이틴	16:45 Why-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3:35 세계 건넌들(재)
08:20 책과 빵(재)	13:20 풀꽃! 페퍼는 즐거워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4:05 지식채널e(재)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30 고양이 파피	17:15 꼬마버스 타요	24:10 한국 영화 특선 (선생 김봉두)(재)
08:50 Why-최고다! 호기심 딱지	13:45 반짝반짝 발명 클럽	17:30 로보카 폴리	
09:05 책갈피 오정 모보(재)	14:00 머털도사	17:45 두디다공	
09:20 미술탐험대	14:30 코코몽2	18:00 생방송 퓌퓌! 보나하니	
09:35 아기 고릴라 등등		19:00 세계 건넌들(재)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 I)	12:10 5분 과탐·생명과학 I
01:40 (국어 II)	12:15 수능 특강 (수학 I B형)
01:40 (영어독해의 기본 II)	13:05 (미적분과 통계 기본)
02:30 (수학 II)	14:00 (국어 B형)
03:20 뉴 탐스런 (한국지리)	14:50 (영어 A형)
04:10 (과학)	15:40 (영어 B형)
05:00 (한국사(하))	16:30 (한국지리)
05:50 2013 포스 (수학 II)	17:20 (사회문화)
06:40 압축탐스런 (생명과학 I)	18:10 (경제)
07:30 2014 포스 (문법 II)	19:00 (윤리와 사상)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 기본 II)(재)	19:50 5분 과탐·생명과학 I (재)
09:10 (수학 II)(재)	20:00 수능특강 (국어 B형)(재)
10:00 뉴 탐스런 (과학)(재)	21:00 (영어 A형)(재)
10:50 2013 포스 (수학 II)(재)	22:00 인터넷 수능 (문학 A형)
11:40 박복의 이슈를 만나는 경제	23:00 (영어독해연습 1-종합편)

EBS플러스2

07:00 2014 공민증개사 시험대비 강좌	15:50 (사회 4-1)
07:30 친절한 수학의 힘(6-1)	16:20 (사회 5-1)
08:00 정보보안산업기사 시험대비 강좌	16:50 (사회 6-1)
08:30 한자능력검정시험 대비 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전과목 6-1)
09:00 출제순 수학 EBS MATH	(전과목 3-1)
09:10 TV 중학 (국어 I②)	18:00 TV 중학 (영어 3-1)
09:50 (수학 I(하))	18:40 (수학 3-1)
10:30 (도덕 I)	19:20 통합신공 (사회 3-1)
11:10 (국어③④)	20:00 중학개념 끝장내기 (국어)
11:50 (수학 2(하))	20:40 (영어)
12:30 통합신공 (사회 1)	21:20 (과학)
13:10 (역사 I)	22:00 (수학)
13:50 (역사 2)	22:40 한국사능력검정시험(중급)
14:30 (사회 2)(재)	23:20 중학개념 영문법3
15:20 만점왕 (사회 3-1)	24:00 경이로문 자연의 세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4일(음 4월 16일 乙酉)

子	36년생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해야만 하니라. 48년생 가볍게 여겨 왔던 것이 크게 비화될 수도 있다. 60년생 잡자코 있는 편이 낫다. 72년생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급변 하리라. 84년생 절호의 기회가 다가온다. 행운의 숫자 : 67, 95
丑	37년생 평상시대로만 진행한다면 무난한 결과를 낼수리라. 49년생 즉시 받아들이도록 해야겠다. 61년생 주체적으로 대응 하자. 73년생 기교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클 것이다. 85년생 지나친 것은 소비가 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78, 06
寅	38년생 영문도 모른 채 따라 가리라. 50년생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62년생 기본적인 이치에 따르는 것이 순탄하다. 74년생 실리 위주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17, 72
卯	39년생 실계를 잘 해야 제대로 지어지는 법이다. 51년생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쓰게 마련이다. 63년생 구대의연합에 사로 잡힌다면 진일보하기도 어려워진다. 75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비틈 없이 검토하자. 행운의 숫자 : 64, 25
辰	40년생 가까스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52년생 직접 보면서 행해야 할 단계이다. 64년생 누적된 것을 해소해 줘야만 다음 과정으로 넘어 간다. 76년생 좋은 마무리는 큰 이익을 불러올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2, 53
巳	41년생 조금씩 승통이 터지면서 자생력이 커진다. 53년생 가볍게 주고받는 말속에 핵심이 숨어 있다. 65년생 상대의 눈빛 속에서 많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77년생 시작이 좋고도 결과까지 보장 된 것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40, 34

午	42년생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야 뒤탈이 없다. 54년생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곤혹스럽게 할 수다. 66년생 분명히 이행하여야 향후의 처세에 지장이 없으리라. 78년생 일이 터지기 전에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02, 88
未	43년생 기대 했던 바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보게 된다. 55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백 번 낫다. 67년생 폐단을 제거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79년생 넓은 시야로 바라보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47, 10
申	44년생 절대적인 기준과 소신을 가져라. 56년생 작은 것을 버리면 큰 것을 취할 수 있게 된다. 68년생 기존 상황을 재연성할 만한 획기적인 일이 벌어진다. 80년생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행운의 숫자 : 13, 57
酉	45년생 순간적인 성공함이 결정적으로 손재수를 야기하리라. 57년생 민첩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놓치겠다. 69년생 일상생활 속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81년생 굳은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행운의 숫자 : 65, 21
戌	46년생 새로운 요소가 개입되면서 혼란스러워지리라. 58년생 경험을 살리다면 무난하게 타개할 수 있다. 70년생 재앙은 지극히 조그마한 데에서부터 생기는 법이다. 82년생 무의식적인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7, 29
亥	47년생 새로운 문사나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리라. 59년생 확실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 71년생 노파심으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83년생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8, 4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악동 탄생은 홈스쿨링 덕분”

악동뮤지션, 첫 앨범 ‘플레이’로 음원차트 돌풍

“전 오빠에게 하고 싶은 말 다해요. 6대 4 정도로 제 입김이 더 센 것 같아요.”(이수현·사진 오른쪽)
“보통 팀에서 작곡가가 힘이 있기 마련인데 수현이는 제가 정해놓은 걸 많이 바꿔요. 파트가 적으면 불평이 어머머마해서 제가 양보를 하죠. 전 조용하게 할 말 다하고 동생은 크게 할 말 다 하니 둘이 싸우면 제가 저요. 하하.”(이찬혁)
작곡 실력이 뛰어난 오빠 이찬혁(18)과 예쁜 보컬을 가진 여동생 이수현(15)으로 구성된 악동뮤지션은 대화 속에서 의좋은 남매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였다.

지난해 SBS ‘K팝 스타’ 시즌 2 우승팀인 악동뮤지션은 YG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하고서 발표한 첫 앨범 ‘플레이’(PLAY)로 음원차트 1위를 휩쓸었다. 공개 직후 수록곡은 차트에서 ‘출 세우기’를 하는 음원 파워를 보여줬다. 그 결과 최근 가온차트에 따르면 앨범의 타이틀곡 중 하나인 ‘200%’는 4월 월간 디지털 종합차트, 월간 스트리밍 차트, 월간 다운로드 차트 1위를 차지해 3관왕에 올랐다.

악동뮤지션은 “내심 기대는 했지만 당시 경쟁한 분들이 많이나와 묻힐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며 “한 곡만 1위를 해도 ‘와~ 대박!’이라고 했을 텐데 음원차트 10위권에 우리 앨범 재킷 색깔인 초록색이 나란히 있어서 ‘오! 마이 갓’(Oh! My God)이라고 여겼다. 우리 나이에 맞는 음악으로 친근하게 다가간 게 장점이었다던 것 같다”고 해맑게 웃었다.

수록곡 전곡을 이찬혁이 작사·작곡했다.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이례적으로 이들에게 ‘권금’(金醵)을 줬다.

“첫 회의 때 양 대표님이 ‘너희에게 뭘 해주어야 할지 모르겠다. 맡겨줄 테니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셨어요. ‘하고 싶은 건 다해 보라’고요.”(찬혁, 수현) 이수현은 “만약에 대표님이 ‘이렇게 하라’고 방향을 제시했다면 어려웠을 텐데 우리 마음대로 했다. 놀다시피 했다”며 “심지어 보컬 녹음을 할 때도 서로 디렉팅을 해주며 우리끼리 했다”고 말했다.

“200%”는 내가 사랑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짝사랑의 느낌을 상상하며 만들었고, “얼음들”은 우리의 다른 색깔을 보여주고 싶어 만든 노래다. 지금껏 우리 음악이 어쿠스틱 사운드와 통통 튀는 가사에 국한돼 있어 앞으로 이런 음악도 할 줄 안다는 걸 꾸준히 들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앨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곡으로는 ‘얼음들’을 꼽았다. “‘얼음들’을 만들면서 스스로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들었을까, 이런 곡을 또 만들 수 있을까’라고 감탄했죠. 하지만 나오자마자 많이 틀어써 질렀는지 아쉬움이 들더군요. 그래서 더 완벽한 곡을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찬혁)

흥미로운 점은 정작 이찬혁은 악보를 볼 줄 모른다는 점. “기본적인 코드는 아는데 악보를 볼 줄 몰라요. 예전엔 녹음



을 안 하고 멜로디를 다 외웠는데 요즘은 곡 수가 많아져서 기타로 만들고 휴대전화에 녹음해두죠.”(찬혁)

이들이 음악을 자연스레 흡수할 수 있었던 건 몽골에서 살 당시 학교에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을 한 덕이다. 남매는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때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몽골로 건너갔고 ‘K팝 스타’에 출연하기 1년 전인 2012년까지 5년 간 살았다. 어머니는 현재 남매를 돌보느라 서울로 건너왔고 아버지는 여전히 몽골에 있다.

이찬혁은 “홈스쿨링을 하면서 자작곡이 나왔다”며 “컴퓨터로 공부하는 걸 고향에 가서 부모님이 ‘너희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다. 우린 기타를 치고 축구를 하며 정말 놀아버렸다. 부모님이 걱정할 즈음 자작곡이 나왔다.

정식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K팝 스타’는 경연이었지만 배움의 장이었다. 이들은 우승 상금 3억원도 부모님과 상의해 여러 단체에 기부했다.

수현은 “요즘 힙합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며 “‘에~’(Yeah~), ‘스웨그’(Swag) 같은 랩보다 감각적인 힙합 보컬들을 따라 하고 싶다”고 초승달 모양의 눈을 하고 웃었다. /연합뉴스

연매협, 내부 회계감사...수익원 대 횡령혐의 포착

<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 연예계의 주요 매니지먼트사들이 소속돼 있는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일부 직원의 비위 첩보에 최근 내부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익원 대의 횡령혐의를 포착해 발각 뒤집혔다.

특히 이번 감사는 연매협 설립 7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으로, 2007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횡령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는 결과가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전시, 진주시 등으로부터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드라마페스티벌, 부산 국제영화제 아시아연기자네트워크(APAN) 등 각종 행사를 벌여온 연매협이 지난 7년간 한차례도 회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연예계에 따르면 연매협이 지난 3월 인덕회계법인에 의뢰한 감사 결과 일부 직원에 의한 심각한 횡령 및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지출 내역 증빙이 일치하지 않거나 업무 무관 경비의 개인적 사용에 관련한 부정행위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매협은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특별감사위원회를 발주해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진행했으며, 횡령 의심 금액이 수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팝 황제 마이클잭슨 사후 5년만에 미발표 곡 공개

새 앨범 ‘엑스케이프’ 전 세계 발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사후 5년 만에 ‘현대’의 웃을 입고 돌아왔다.

소니뮤직은 13일 잭슨의 새 앨범 ‘엑스케이프(사진)’(XS-CAPE)를 발표했다. 앨범에는 앨범 명과 같은 제목의 ‘엑스케이프’와 선공개된 ‘러브 네버 펠트 소 곳’을 비롯해 여덟 신곡이 수록됐다.

이번 앨범은 에픽 레코드 대표 엘 에이 리드가 기획했다. 잭슨이 1983년부터 1999년 사이 녹음한 미공개 작업물을 토대로 팀 바랜드, 로디니 저킨스, 스타게이트 등 여러 경쟁한 스타 프로듀서가 현대적인 사운드를 더했다.

첫 트랙 ‘러브 네버...’는 80년대의 감성에 디스코 리듬을 더한 매끄러운 느낌의 곡이다. 세 번째 트랙 ‘러빙 유’도 부드러운 멜로디에 다소 힘을 뺀 듯한 잭슨의 목소리가 매력적이다.

반대로 ‘시카고’와 ‘슬레이브 투 더 리듬’, ‘엑스케이프’에서는 잭슨 특유의 가성과 쏘는 듯한 록 장법이 돋보인다. 반복적인 신스 사운드의 ‘두 유 뉴 유 웨어 유어 칠드런 아’와 드럼 소리가 두렵게 걸리는 ‘블루 캄스타’는 로맨틱하게 시작한 음반의 말미에 걸리는 그늘을 드러낸다.



한 장식들이 거주장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원본 작업물이 장기간에 걸쳐 녹음된 것이어서 곡마다 목소리 녹음 상태가 다르게 느껴지는 점도 아쉽다.

잭슨은 전 세계 약 10억 명의 판매량을 기록한 1980~90년대 최고의 팝 뮤지션이다. 그는 지난 2009년 6월 주치의 콘래드 머리 박사로부터 치사량의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사망했다. /연합뉴스